

2023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10:00 ~ 12:00

○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병우, 양규혁, 김남수, 정용채, 김용대, 주상현, 황인호, 김용우, 허연, 양수정 위원

○ 불참자 : 홍철운, 안문석, 최옥채, 이현욱, 박상민 위원

○ 상정안건

-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 중기재정운용계획안

간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이경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중기 재정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양수정

위원장 :

(양병우)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15명 중 총 10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김명숙)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양병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성문화회관에 공모예산으로 운영하는 작은 영상실이 있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XR스튜디오가 그곳을 대체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

(김명숙)

네, XR스튜디오는 실크로드 4층 구 카페베네 자리에 구축이 되는데요. 링크사업단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있으며 학교 동영상 제작, 디지털 동영상 관련 수업, 교수님 영상제작을 위해 구축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주상현)

감액사업 중 기관공통운영에서 공공요금 감액이 있는데요. 요즘 난방비도 오른다고 하는데 괜찮은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 네, 현재 추산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 많은 학생들이 올해에는 대면 OT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면 OT에 대한 예산 지원
(김남수) 요청을 했었고 오늘 잘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이미 OT에 대한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됐지만 지난 3년 동안 대면을 못했기 때문에
(양병우) 이번 대면 OT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있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 본부 측에서는 비대면 OT를 진행하려고 했고 저희 학생회 측에서 대면 OT를
(양수정)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OT때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부스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학교를 2년 동안 비대면으로 다니다보니 학교에 정을 붙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학생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회 측에서도 홍보 강화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 OT 참석 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허연)

위원 : 온라인 줌을 통해서는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각 단과대학에서 진행하는 캠퍼스
(양수정) 투어에 88개 학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 아까 말씀하신 XR스튜디오는 주관이 링크사업단인지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황인호) 주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링크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들이 참여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위원 : 정부재정사업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학교를 위해 존재하기
(정용채) 때문에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을 사업비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번 경우도 링크에서 반절, 국비에서 반절을 조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좋은 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
(양병우)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학교는 아쉽게도 영상학과가 없는데 영상 관련 동아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되어야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 현재 교육과 관련한 것은 혁신교육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의 것은 국립대학
(정용채) 육성사업에서 각종 사업비성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혁신 교육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이 각각 140% 증액할 예정이라 재정적인 상황에서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양병우)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양병우)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3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함
(김명숙)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 이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사범대와 약대에서 실습비 관련하여 문의를 받았습니다.
(양규혁) 사범대와 약대의 경우 실습을 나갈 때 내는 실습비가 있다고 합니다. 기획처는 단대
예산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단대는 따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생기는 문제일 텐데 실습비 만큼은 등록금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마련해야지 학생들의 역량으로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을
학교에서 지원하면 학생들 간에도 차별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 사범대는 특별히 실험실습비 몫으로 더 받는 돈은 없습니다. 약대의 경우 실습비
(김명숙) 몫으로 일정 부분 등록금이 책정됐다고 보이긴 합니다. 저희가 경직성경비로 실험
실습비를 정할 때 학생 수, 교수 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추후 이 부분을 주요
사업비에 반영할지 실험실습비에 반영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두 개의 단과대학인데 세목을 하나 세워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양병우)

재무과장 : 이는 재무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
(김명숙) 같습니다. 추후 정책 수립 시 재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실험실습비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실험실습비를 정할 때 학생 수, 교수 수 등을
(황인호) 고려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실험실습 과목 자체가 없는
과도 있고, 과내에서도 n분의 1로 예산을 나누지만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는 교수들은
1, 2명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실험실습비뿐만 아니라 학과운영비가 계속 삭감되어왔습니다.
(양병우) 예산 자체가 본부 중심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단과대학 중심의 회계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실험실습비나 부서운영비가 쓰는 규모에서 작아졌을지는
(김명숙) 몰라도 금액을 삭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이 있었고 그 외에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 실험실습비의 대부분을 혁신이나 육성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용채) 향후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의를 실제로 듣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상대의 경우 타 학과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상대에서 감당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학과 강의에서부터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학과 예산이 변동되는 형태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교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같이 연구를 해야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우선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양병우) 진행하기는 어렵고 교수회에서 최근 20년 동안 실험실습비 세부 내역 등 데이터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 저는 대학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원생 실험실습비 예산이 없어서
(김남수) 실제로 대학원생이 논문을 쓸 때 교수가 지원받은 예산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대학원생 등록금은 매년 인상되는데 대학원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학원생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1억 정도 세워지긴 했는데 추후 대학원생 실험실습, 논문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 네, 이번에 대학원 실험실습비가 1억 4천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각 단대에는
(김명숙) 재무관이 있는데 바로 학장님입니다. 재무관이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 : 저도 상대 회계학과 소속이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대로 타 학과생들이 수업에
(양수정) 많이 들어와서 본과생들이 전공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절학기 전공수업을 요청 드려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복수전공, 부전공이 많은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우선 수강신청 등록시스템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과 학생들에게 일정부분
(양병우) 우선권을 주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총학생회 측에서 앞으로 새로운 대학본부 집행부가 편성되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정)

위원 : 22쪽에서 현장실습지원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는 학생 취업과 관련된 굉장히
(주상현)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만큼 꼭 지원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해외봉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코로나도
안정되는 상황이니 추경에서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생겼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하여 전자저널 임차료가
1억 5천만 원 증가하고 국립대육성사업에서 추가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국립대육성사업으로 전자저널을 임차하는 것이 실질적인 명목상 맞지는
않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약 국립대육성사업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면 대학회계 1억 5천만 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원 : 기획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학교가 국립대육성사업평가에서 계속해서
(정용채) 받은 지적사항이 왜 도서관 전자저널을 국립대육성사업으로 임차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예산대비 부족분이 3억 정도 발생하여
국립대육성사업에서 궁여지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해외실습 프로그램이 수년간 중단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양수정) 예산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새로운 총장님 임기가 시작되고 사업비 조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숙)

위원 : 총학생회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학생활동자치로
(양수정) 편성된 예산이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2021년에는
1억 4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삭감됐고,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1억 7천 3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총학생회 측에서도 대면활동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1학기를
온전히 대면활동으로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부족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금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후 추경 때라도 코로나 이전인 1억 9천
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 재정위원회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조정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우선 2023대학회계 예산안은 작년 기준으로 세워졌음을 이해해주시고, 추후
새로운 집행부가 편성되면 말씀하신 내용을 데이터로 준비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양수정)

위원장 :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양병우)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양병우)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제정운용계획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중기제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함

(백유선)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 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이용률이 매년 낮아지고
(양수정) 있습니다. 관련 이유를 분석해보니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공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앙도서관 좌석배치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시대적 모습을 띠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구정문 상권에 있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후생관 수요도 많이 줄었고 생협 측도 적자 상황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중앙도서관도 현시대에 맞게 오픈 스페이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학교는 강의만 할 수 있는 복합 강의동이 존재하지
않는데 강의동이 존재한다면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대의 경우 기사 시험장 유치를 작년에 최초로 성공했지만 유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이 기사시험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모교에서 시험을 본다면 학생들의 부담감이 많이 줄어
취업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의동에서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현재 실크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어교육과 앞서 말씀하신 영상, IT 관련 인재들을
양성해주신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의 거점국립대인 만큼 이 강의동을 지역사회 취업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작년에 3억을 들여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대학 모든 캠퍼스
(정용채) 내 건물의 내구성 조사를 진행했고 불행히도 우리학교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
30개동이 넘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되고 이용자 순위가 높은 건물이 우선 개축·
개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학교 전체 건물 중 가장 최신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생회관,

스포츠 콤플렉스, 연구적 측면으로 의학관 등의 개축이 시작됐고 이렇게 최근 짓는 건물은 기존 대비 스페이스를 1.5에서 2배로 넓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600억을 들여 공대 1,2,3동을 한꺼번에 개축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전용동은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덕진권역 도시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기획처가 노력해서 구 체육관자리에 210억 정도의 아이디어 타운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우리학교 외 재원을 이용하여 이곳을 학생창업, 전시 및 데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중앙도서관 전체를 스터디카페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있고 일부 구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학교 전체 예산 중 작은 부분이니 새로운 총장님 오시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요청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 저희도 시설과와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고 시설과에서도 구성원들의 안전, 취업률 강화 등 시설 개보수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학교 내 있는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그곳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차기 총학생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회의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 앞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최근 5년간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는 것이 (양병우) 어떨까 싶습니다.

재정기획팀장 :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유선)

위원장 :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양병우)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행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間)서명 할 수 있습니다. 회의 때 결정한 바에 따라 주상현, 김용우, 유명환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유명환 위원을 대신해 새로 오신 양수정 위원님이 간서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이에 주상현, 김용우, 양수정 위원이 간서명 대표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병우)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 이상으로 2023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작성일 : 2023. 2. 3.(금)

위원장 : 양 병 우 

간 사 : 이 경 환 

기 록 자 : 부 찬 미 

 00) 48510